

파프리카 재배농 “고맙다 恩高”

엔화 가치가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작목과 내수 위주 작목을 재배하는 농민들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엔고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작목은 대일 수출 품목인 파프리카.

화순 도곡농협은 지난달 24일부터 파프리카 일일 수출을 재개했다. 수출단가는 5kg당 1천500엔으로 지난해 1천700~800엔에 비해 다소 하락했다. 또 겨울철 파프리카 작황이 좋지 않아 수출물량도 지난해 대비 30% 가까이 감소했다.

국화 등 日수출 농작물 가격 작년 두배 내수 위주 방울토마토 60~70% 폭락

그러나 지난해 말 830원선이던 원·엔 환율이 최근 1천400원대에 달해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수출단가가 지난해 1만4천원대에서 2만원대로 상승, 채산성 개선에 도움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초만 해도 일본 내 실물경기가 위축돼 파프리카 수요

가 줄어 대일 수출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했던 파프리카 재배농가들이 활기를 되찾고 있다.

파프리카 재배 농가 이일형(54·도곡면)씨는 “엔고로 수출여건이 개선되면서 당초 우려했던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국화 역시 지난해와 같은 송이당 500원에 수출되고 있으나 엔고로 일본 현지 판매가격이 낮아져 수출물량 증대가 기대되고 있다.

반면 방울토마토 등 내수 시장 위주의 작목을 재배하는 농민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방울토마토의 경우 소비 부진으로 가격이 1년 전과 비교해 60~70%까지 폭락했다.

한편 전남지역은 지난해 46ha에서 연간 3천954t의 파프리카를 생산, 560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올린 바 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95년 출범 ‘장성 아카데미’ 600회 특강

26일 이만의 환경부장관 감사 초청

13년간 군민·공직자 의식변화 기여

장성군의 사회교육 대표브랜드인 ‘21세기 장성아카데미’가 600회를 맞는다. 장성군은 오는 26일 군청 4층 아카데미홀에서 이청군수를 비롯해 군민, 유관기관장, 공직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만의 환경부 장관을 초청해 600회 기념 특강을 갖는다. ‘21세기 장성아카데미’는 지난 1995년 9월15일 첫 강의를 실시한 이래 군민과 공무원 등 사회구성원들의 의식을 변화시켜 지방자치의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매주 목요일마다 열리는 강의에는 매회 400명의 수강생이 참여하는 등 지금까지 25만명이 넘는 인원이 강연을 들었다. 감사인으로 김광식 감사위원장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 손욱 농심회장 등 전·현직 장·차관, 국회의원, 대학 총·학장, 유명교수, 언론인, 기업경영인 등 정·관·학·계 저명인사들이 총 망라돼 있다. 교육을 통한 군민과 공무원의 의식변화는 매년 중앙부처 등에서 실시하는 평가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장성군은 올해 도시대상 활력도시부문 특별상을 비롯해 환경관리 우수자치단체 선정,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최우수군 선정 등 14개 분야에서 7억5천여만원의 시상금을 수상했다.또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등 수많은 기관단체에서 벤치마킹을 다녀갔으며 전국 80여곳에서 장성아카데미와 유사한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장성=류종선기자 yjs52@

함평 김현숙씨 공예대전 대상

함평군 월야면에서 10여년간 한지공예 작품활동에 전념해 온 김현숙(42)씨가 공예예술 전국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김씨는 최근 열린 ‘2008 대한민국 공예예술대전’서 1천여점의 출품작 중에서 ‘웃칠애기 3층장’(사진)으로 대상인 지식경제부 장관상을 받았다.



“낙지 먹고 힘 내세요” 영하의 추운 날씨 속에서도 강진군 마량항 수협위판장이 낙지와 감성돔, 농어 등 싱싱한 수산물 경매로 활기를 띠고 있다. 경매된 수산물은 마량항 횡집이나 서울, 부산, 광주 등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판매된다. <강진군 제공>

해남 귀농, 최고 1억원까지 지원

郡, 조례 등 다양한 지원책 마련 유치 나서

해남군이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등 귀농인 유치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해남군은 조례 제정 등 제도적 뒷받침으로 귀농정착 지원사업을 추진, 도시민들의 해남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지원 조례안을 보면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실제 거주하게 되면 가구당 50만원의 정착 지원금과 빈집 수리비로 최고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4천만원의 주택 자금 융자와 2년 거치 3년 상환(연리 2%) 조건의 진흥 기금을 1억원까지 융자받으며 각종 보조금은 물론 농업 경영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비도 지원받는다. 이밖에 영농기술 습득의 어려움을

돌도록 귀농 1가구당 지역 선도 농가와 공무원 각 1명이 돕는 귀농인 상담제도도 추진하고, 군 친환경농산과와 14개 읍·면에 귀농인 상담실을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김중식 해남군수는 “세부적이고 다양한 지원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지자체는 해남군이 유일하다”며 “지원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귀농인 유치활동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해남=박진희기자 lucky@



김씨는 한지공예 1급지도사 등 한지와 관련된 다수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매주 초·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예 강좌를 여는 등 전통한지공예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김씨는 “유연한 기회에 한지공예를 접하면서 하늘이 내린 오색한지의 매력에 빠지게 됐다”면서 “전통한지 학습장을 조성해 학생들이 우리 전통 공예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고 싶다”고 말했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나주 동수 오량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

행안부 장관 국비 지원 약속

나주 동수 오량 농공단지 기반시설이 대폭 정비된다. 기업인들의 현지에로사향을 직접 듣기위해 지난 19일 동수 오량 농공단지를 방문한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반시설 정비 사업을 위한 국비 지원을 약속했다. /나주=정철현기자 chjung@

이 자리에서 신정훈 나주시장은 “지난 90년 초에 조성된 농공단지 내 상하수도 관로 및 인도 보도블록 등 기반시설의 심각한 노후화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비 10억원 지원을 건의했다. 나주시는 국비 10억원과 지방비 3억원을 들여 내년 초 동수 오량 농공단지 기반정비에 착수할 계획이다. /나주=정철현기자 chjung@

농촌지도사업 평가 강진농기센터 최우수

강진군 농업기술센터가 전남도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에서 지난 2006년에 이어 두번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강진군 농업기술센터는 올 초 청사 신축 이전과 함께 다양한 시험포 설치 운영, 농업인 현장 애로기술단 운영 등 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에 앞장서왔다. 특히 고급 쌀 상표인 ‘프리미엄호평’과 ‘봉황쌀’ 개발, 특새 소득작목인 모란, 작약, 아스파라거스 단지, 친환경비 가립 신선택소 단지 조성, 귀농인 유치, 녹색문화대학 운영 등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강진=박진희기자 lucky@

담양군 채석허가 연장 소송 최종 승소

담양군이 채석 허가 기간 연장을 둘러싼 업체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담양군에 따르면 대법원은 골재채취업을 하는 A사가 담양군을 상대로 청구한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담양군이 채석 기간 연

장을 불허한 것은 합리적인 행정행위”라는 취지로 기각 판결했다 담양군은 전했다. 담양군 대덕면에서 골재 채취를 하던 A사는 담양군이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하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담양=노정훈기자 cjpb17@

‘농업인 안전 공제’ 가입 유도

“영광군 적극 나서야”

이종윤 군의원

농업인들이 사고 발생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광군의회 이종윤 의원은 최근 열린 영광군의회 군정질문에서 “농촌 인력의 고령화 및 심각한 인력난으로 농기계 사용이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산재보험에서도 제외되고 있는 농업인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농업인 안전공제’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업인 안전공제는 농촌복지형 공제보험으로 국비 50%가 지원되고 있



으나 홍보 및 인식 부족 등으로 가입률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이의원은 “여주시 등 타 자치단체에서는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를 지원해 많은 농업인들이 각종 사고시 혜택을 받았다”며 “농업인 안전공제가 지역 농·축협 등과 연계해 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농업인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의원은 지난해 ‘경로당 실태조사’라는 정책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서민들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

옥과로타리클럽 이웃돕기 노인당 등에 쌀·배 전달



국제로타리 3610지구 옥과로타리클럽(회장 박왕규) 회원들이 최근 양시현인 흥산보급자리와 옥과, 오산, 입면 노인당, 현정지역 아동센터, 삼기 주간보호센터 등에 쌀 380kg, 사과와 배 12상자를 전달했다. 이번 전달된 농작물은 회원들이 직접 가꾼 것으로 옥과로타리클럽은 불우 이웃들에게 다양한 봉사활동을 펴고 있다. /국성=김계경기자 kj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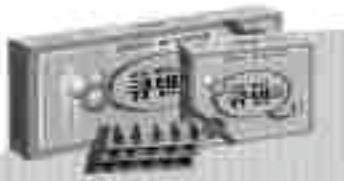


“자식들한테 바랄게 뭐 있나?
모두 건강하게 살아주면
그게 고마운거지!”

“요즘 효자가 별건가
그저 아무 탈없이 건강하게 살아주면 그게 효자지”

당신의 이 한마디가 자식들에게 힘이 되고 건강이 됩니다. 당신의 이 마음처럼 당신께서도 늘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건강도 낳고, 건강이 행복을 키웁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좋은 약을 만들게 합니다. 국제약품은 모두가 생명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코멘자임 Q10 함유 종합영양제
국제-에이스 큐텐

비타민 A, C, E 및 보충
- 국제비타민, 코멘자임, Q10, 코엔자임, 아연, 셀레늄
- 국제비타민, 코멘자임, Q10, 코엔자임, 아연, 셀레늄
- 국제비타민, 코멘자임, Q10, 코엔자임, 아연, 셀레늄
- 국제비타민, 코멘자임, Q10, 코엔자임, 아연, 셀레늄
- 국제비타민, 코멘자임, Q10, 코엔자임, 아연, 셀레늄
- 국제비타민, 코멘자임, Q10, 코엔자임, 아연, 셀레늄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KUCIEN 국제약품
http://www.kucienpharm.co.kr